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 장 심대평
편집인 : 편 집 장 심규선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 화 : (02) 2267-7857
(02) 2267-9339
F A X : (02) 2269-7755
인 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44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0년 7월 31일(금)

푸른 소나무(靑松)처럼 당당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심문을 빛낸 행정고시 합격자 5인의 포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2019년 제63회 행정고시 합격자 명단에는 심문의 젊은이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옛날로 치면 과거급제다. 대종회는 7월 12일, 제65기 신임관리자 과정(사무관) 교육 중인 이들을 서울의 한 음식점으로 초대해 행정고시 도전기와 공무원으로서의 포부, 심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왼쪽부터 심범석, 민준, 정민, 환보 씨. 수빈 씨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3면에 관련 기사〈글=심규선, 사진=심흥섭〉

2020년 정기총회는 8월중 서면결의로

코로나19로 회장단 결정… "서면결의 통지서"로 의결권 행사
대종회 약사 발간… 13상신 숭조사업… 타임캡슐 계획 보고

지난 7월 22일 대종회회장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유보된 2020년 정기총회를 '서면결의 총회'로 추진키로 의결하였다. 2020년 정기총회 '서면결의 통지서'를 수령하신 전국 일가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 서면결의기간 : 2020. 8. 19~8. 28한
◇ 통지서 수령 : 대종회 종보에 동봉 발송, 신청자에 개별발송
◇ 참여방법 : 서면결의서 각 안건별 찬반란에 "○"표기
◇ 제 출 처 : 우편(서울 중구 을지로30길 47. 청송심씨대종회),
팩스(02) 2269-7755
또는 이메일 set217@naver.com-스캔파일로 송부
※ 문의처 : 대종회 (02) 2267-7857, 2267-9339, 총무이사 010-5591-0055

이외에도 대종회 이사 추가추천(안) 및 10년주기 대종회 약사를 발간키로 의결하였다.

한편 대종회는 13상신 숭조사업중 청녕공(휘: 순택. 영의정) 선조묘역 관리 추진상황, 타임캡슐(기억상자) 매설 및 2021년도 청송심문 달력 제작 등의 현안업무를 보고하였다.

(재)청심장학회 제2기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재단법인 청심장학회(이사장 심대평)는 제2기 장학생 10명을 선발하였다. 지난 6월 13일 거행한 장학금 수여식에서 고등학생 3명, 대학(원)생 7명 등 총 10명에게 각각 300만원, 500만원씩을 전달하였다.

성 명	학 교	프 로 필
심재훈	경기 오산 세마고등학교 2년	중학교 전교 1등 및 고등학교에서도 수학, 과학을 비롯하여 다방면에서 뛰어난 성적을 유지하고 있음. - 장래목표: 외과의사
박정빈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년	수학,.과학에 탁월한 재능을 지닌 상위 1%의 영재들만 진학하는 영재학교 학생으로 교내 창의탐구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성적이 탁월함. - 장래목표: 반도체 공학 최고의 전문가
심영민	고양예술고등학교 2년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학업 성적도 우수하며 무용 실력이 뛰어나 중학교부터 한국무용 전통부문에서 특상 및 금상 등 다수의 수상을 함.

성 명	학 교	프 로 필
최민용	카톨릭대학교 의예과 1년	성적이 탁월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봉사정신과 동아리 활동 등 솔선수범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성실함. - 장래목표: 정신과의사
심태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년	고교 수석졸업과 타의 모범이 되는 봉사상 수상, 과학탐구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적이 탁월하며 성실함. - 장래목표: 임상의사, 연구의사
심서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년	수능 1등급 최상위 성적으로 탁월한 지적 능력과 성실한 성품으로 장래 국가와 사회에 크나큰 리더로 성장이 기대됨.
심보미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 1년	한국 전통국악을 전공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부터 각 대회에 참가하여 다수의 장원 및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임.
심재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며, 토익 980점 취득, 한자능력 1급 공인자격 취득 등 전과목 학업성적 탁월함. - 장래목표: 회사법, 지적재산권법 등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심 헌	세인트루이스대학교 치과대학원 2년	세인트루이스대학교 치과교정과 수련과정의 전공으로 재학 중이며, 교정이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 중에 있으며 그 과정동안 교정과 더불어 치과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함. - 장래목표: 치과전문인
심주현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동양철학과 1년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중국 칭화대학교 학술교류 프로그램 참가) 후 동 대학원에서 동양철학과 재학중으로 학업성적 탁월 함. - 장래목표: 교수, 전통문화연구소 연구원

내일의 주인공: 청심장학금 2기 수혜자 3명의 소감

"영광스러운 심문의 장학생… 그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새삼 내 꿈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깨달았습니다"

심영민
(고양예술고 2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용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장학생으로 뽑히게 되면서 제가 하는 일과 저의 꿈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기회 삼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아무리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함부로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며 성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배울 게 많지만 그만큼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용은 정말 본인이 즐거워야 할 수 있는 예술 분야이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도 무용을 시작하고 나서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청심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은 그동안 제가 해온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앞으로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돈보다도 누군가 응원을 해준다는 사실이 큰 힘"

심주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석사과정)

정말 기뻤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 저를 응원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큰 힘이 되지만 이런 심리적인 영향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심장학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동양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이라고도 합니다. 철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사람의 사유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문명사회에서는 조금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든 경제든 모든 것에는 사람의 철학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의 영역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가 사회변화에 분명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깊게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하며 공부하겠습니다. 청심장학회의 성원에 보답하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쓰고,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심 헌
(세인트루이스대 치과대학원생·교정학)

제 대신에 이버지가 대리 참석하였으나 보내주신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그 날의 기쁨과 감동이 그대로 전해왔습니다. 심씨가 오랫동안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나라와 국민에게 크게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은 종종 배워왔습니다. 저희 종파에서도 고조 할아버지께서 고종황제 시절에 벼슬을 하였는데, 고종황제가 기차로 오산을 지날 때 잠시 기차를 멈추고 할아버지를 찾았을 때 의관을 정제하고 역으로 마중을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두 살 때 동유럽 알바니아에 가서 의료선교와 봉사를 하는 부모님의 삶을 직접 보면서 자랐고, 이후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와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로서 수련중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미국서 계속 일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두 나라 모두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심장학회 장학생이 된 계기로 심씨대종회 및 장학생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대종회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행시 합격자 5인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공복의 길에 나서는 각오

심민준(沈旻俊 · 재경)

“대종회서 장학금 받았을 때 심문의 자부심 느껴”

합격 축하 인사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외삼촌이 ‘합격까지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이 참 대단하시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의 노력보다 부모님에게 공을 돌리는 것을 보니 숭조돈목의 정신을 제대로 배운 것 같다. 심문의 본향 ‘덕천마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일까?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농촌에 살면서 농촌지원정책으로 도움을 받는 농민들을 많이 봐 왔다. “나도 국민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 2016년 군대를 제대한 후 본격적으로 공부에 매달렸다. 여러 권의 책보다는 한 권을 깊게 파는 스타일.

“무역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대학 시절 대종회가 주는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다. “심가로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다. 그때 느낀 개인의 자부심을 공복의 자부심으로 승화시키길.

▽1992년 생(28세) ▽경북 청송 출신 ▽안동고-고려대 경제학과

심범석(沈範錫 · 방송통신)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때문인지 승진한 기분”

2010년에 진로를 결정하고, 2013년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거듭된 탈락. 2018년 7급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꿈을 접지 않았다.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합격해서인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험을 정복했다는 뿌듯함도 들었고, 7급으로 일한 탓인지 승진한 기분도 들었고…”

오랜 공부한 것이 부정적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공부한 햇수가 늘어날수록 기초에 더욱 충실하고, 반복학습이 가능했던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합격의 기약도 없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부를, 끝도 없이 해야 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했단다.

“통신, AI분야에 대한 지식을 더 쌓고 싶습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원활하게 교류를 해야 하니까요.” 그는 벌써 미래로 가 있다. “국민이 기억하는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특별히 심문과 대종회에 들어보거나 관심을 가진 적은 없다. 어쩌면 이것도 시간을 들여 꾸준히 노력하면 될 일이 아닐는지.

▽1989년 생(31세) ▽서울 광진구 출신 ▽동국대부고-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심수빈(沈修彬 · 일반행정)

“공무원의 책임감이 내 삶의 중심을 잡아 줄 수도”

“국가의 정책을 고민하고 기획한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공무원은 책임감이 필요한 직업이지만, 그 책임감이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도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2015년 졸업 후 몇 달간 실컷 놀다가 7월경 서울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갔다.

“공부의 왕도요? 많이 오래 공부하는 것 아닌가요.” 목표에 거의 온 듯한데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달콤한 디저트로 군것질을 한 후 다시 책상에 앉았다. 이제는 더 달콤한 꿈을 꾼다. “국제정세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고 싶습니다. 전문가는 물론이고 고민하는 공무원,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심 씨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종종 심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 본인도 대학 교양수업 때 ‘본관 조사’라는 숙제를 하면서 심 씨에 대해 애정을 갖게 됐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축하 인사? “부모님께서 ‘수고했다’고 한 말입니다.” 그의 진짜 수고는 지금부터다.

▽1993년 생(27세) ▽ 경남 진주시 출신 ▽김해외고-고려대 사학과

심정민(沈靜岷 · 재경)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결심의 순간은 언제나 우연히 찾아온다. “대학 전공을 경영학으로 결정하고, 회계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와 다르다. 교수님의 이 말에 정부회계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나 종종 적을 만났다. 외로움이었다. 친구와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퇴치했다.

꿈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전문가가 돼 그 분야의 ‘통’이 되고 싶습니다. 복잡다양한 우리 사회를 숫자를 통해 간명하게 보여주는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혹여 숫자에만 빠지면? “성실, 청렴한 공무원은 기본이지요.”

할아버지께서 “심 씨는 왕비가문”이라는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심 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심 씨에 더 알고 싶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이제 사무관 아빠구나.” 그는 ‘아빠의 딸’에서 ‘국민의 딸’이 됐다. 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줄 의무를 지고.

▽1995년 생(25세) ▽부산 출신 ▽용인외고-서울대 경영학과

심환보(沈奐輔 · 전기)

“대종회에서 받은 연락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

“사실 여태까지 청송 심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대종회의 연락을 받고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느낌입니다.” 대종회의 존재 가치를 잘 보여준 사례로 기록해야 할 것 같다.

선배로부터 5급 사무관이 하는 일을 듣고 “국가정책에 직접적,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고 했다. 하지만 2차 시험에 붙었을 때는 주변에 도와줄 선배도, 참고할 자료도 없었다. “그럼 내가 만들면 되지 않겠나.” 막막함이 오히려 자신의 페이스대로 공부하도록 만들었다.

‘전기’ 직렬로 합격했지만, 하는 일은 ‘전기에 관한 행정’이다. 행정으로 전문성도 쌓고 성과도 내야 한다. 외삼촌은 “곧 너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고 싶다.” 아무리 어깨가 무거워져도 ‘꿈’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

▽1993년 생(27세) ▽부산에서 태어나 천안에서 성장 ▽천안중앙고-인하대 전기공학과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14)

임진왜란 속에 꽃핀 선비정신…배운 것을 실천하시다

집현전 학사 월헌공(月軒公·휘 沈遜) 증손
11세조 벽절공(碧節公·휘 沈淸) 할아버지 (1)

沈厚燮
아동문학가·교육학박사

얘야, 너는 '지행합일(知行合一)' 즉 '아는 것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말이 품고 있는 깊은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지행일치(知行一致)'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단다.

경북 청송을 에워싸고 흐르는 용전천 언덕 위에 고색창연한 정자 하나가 있어. 우리 청송(靑松) 심가의 본향인 덕천(德川) 마을에서 가까워.

이 정자는 바로 임진왜란 때에 의병을 일으킨 벽절공 할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어. 길목에 '벽절정(碧節亭)'이라는 표석이 서있어.

벽절공 할아버지는 1555년 그러니까 조선 명종 10년에 태어나셨단다. 이 무렵에 벌써 왜놈들은 우리나라 해안을 따라 쳐들어와 노략질을 하는 등 그 횡포가 매우 심했어. 그해 왜놈들이 일으킨 난리를 을묘왜변(乙卯倭變)이라고 하는데, 60여 척의 배를 몰고 전라남도 영암(靈巖)의 달량포(達梁浦)와 이포(梨浦)를 기습하여 부근 10여 개의 진(陣)을 함락시킨 사건이다. 이때 왜놈들은 이미 임진왜란을 꿈꾸었다고 볼 수 있어.

벽절공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인내심과 독립심이 매우 강하셨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꾸준히 해내려고 애썼는데, 그래서인지 몸도 매우 강건하고 성격도 아주 담대하셨대.

각오도 대단해서 공부방 벽에 옛 송(宋)나라의 충신 사방득(謝枋得)의 시(詩) 한 구절인 '강개살신이 종용취의난(慷慨殺身易 從容就義難 · 한때 분개해 가볍게 죽는 것은 쉬우나, 조용하게 의를 다함은 어렵다)'이라고 써 붙이고는, 대의(大義)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셨단다.

이 말씀대로 벽절공 할아버지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왜적과 맞섰어. 울산 태화강 언덕 도산(島山)에 왜적이 성(城)을 쌓고 장차 온 나라를 유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청송에서 멀리 울산까지 달려가 싸우시다가 불과 마흔넷의 아까운 나이에 목숨을 나라에 바치셨어. 마흔넷이면 너무 짧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학문은 배워서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며 그대로 실천하셨어.

안동 사람 권주욱 선생이 편찬한 벽절공 할아버지의 묘갈명(墓碣銘)[1]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와. 이걸 보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굳은 심성을 지니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

예로부터 충성과 절의가 있는 선비는 반드시 재주에 문무를 겸한 뒤에야 큰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옛 당(唐)나라의 장순(張巡)은 널리 배워 아는 것이 많았으며,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자기(子奇)는 식견(識見)이 매우 높아 후세의 여러 선비가 따라올 수 없었다.

이제 벽절공은 학문도 깊었으려니와 국난에 임하여 오랑캐와 싸우다가 죽었으니 어찌 글을 읽는 힘과 그 절의의 기운이 같지 않으리오?

내가 늘 이것을 읽고 감탄하고 있었는데 지금 심사문(沈斯文)[2] 성지(誠之)가 책을 싸서 족자(族子)[3] 의택(懿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의 조상 벽절공(碧節公)이 돌아가신 지 이미 삼백여 년이라, 가장(家藏)[4]되었던 서적이 모두 불에 타고 오직 남은 것은 그때 <창의일록(倡義日錄)>[5]만 있어서 대략이나마 천고(千古)의 희미한 명성(名聲)이 있으니 원컨대 자네가 한 마디 비문을 써주게' 하므로, 내가 사양하다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선생은 이미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 어찌 기록이 많을 수 있으리오? 내가 이 일을 맡는 것이 도리어 과분할 뿐이다' 하고 붓을 들었다.

공의 휘는 청(淸)이요, 자는 천일(千一)이며 성은 심씨요, 청송인이고 호는 벽절(碧節)이다. 가정(嘉靖) 갑인년 2月 23日에 부북(府北) 도치동(道致洞)[6]에서 났으니 어려서부터 인물이 뛰어나서 남에게 눌려 지내지 않았고, 담력이 세고 용맹하였다. 차차 장성하여서는 널리 경서(經書)와 사기(史記)에 통달하고, 천문역수(天文曆數)에도 연구가 깊었다.

선조 임오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병술년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슬픔을 다하였다. 복을 벗고 나서는 물 위에 정자를 짓고, 손수 아홉 그루의 소나무를 뜰 가에 심어 구송(九松)이라 이름 하였으니, 겨울철에도 변치 않는 소나무의 기상을 본받고자 함이었다.

정자의 벽에 써 붙이기를 한때의 '분개로 죽는 것은 쉬우나, 자연스럽고 태연하게 의(義)를 위하여 몸을 희생하는 것은 어렵다.' 하였으니 이것은 공이 본디 쌓은 포부이다.(아래 줄임)

이로 보면 우리 벽절공 할아버지는 굳은 의지를 기르셨고 배운 대로 나라를 위해 의롭게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러한 의로운 기운이 우리 심가의 몸속에 찬연히 흐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러한 선조(先祖)의 가르침을 잘 이어받아야 하는 거야.

(다음 호에 계속)

벽절정 입구 표지석

안동에서 청송으로 들어오는 국도 오른쪽 언덕 위에 서 있는 벽절정

1) 묘비 뒤에 새기는 죽은 사람의 행적
2) 유학자(儒學者) 혹은 선비를 높여 일컫는 말. 심청(沈淸) 선생의 후손 심성지(沈誠之) 선생을 가리킴
3) 집안의 자손을 가리키는 말로서 여기에서는 심의택(沈懿澤) 선생을 말함
4) 집에 보관되어 있던
5) 임진왜란 당시 벽절공이 적어놓은 일기
6) 지금의 파천면 관동, 덕천과 가까운 동네이다.

청송 심문 13정승 열전(8) 청령공 영의정 심순택(1824~1906)

조선의 멸망을 막으려 한 심문의 마지막 정승

을사조약때 자결하려 하자 고종이 막아… 부인은 주민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심재석
문학박사

자결코자 했으나, 고종이 특별히 사람을 붙여 자결을 막았다. 말년에 평택의 진위면 봉남리에 정착해 생을 마감했고, 유택도 그곳에 있다. 고종황제는 1902년 청령공에게 궤장(几杖 · 의자와 지팡이)을 하사하며 이런 시를 지을 정도로 심순택을 총애했다.

안석과 지팡이에 은총과 영광이 새로운데
영수각(靈壽閣) 앞에 나 앉은 세 정승 중
흔연한 백발에 나이 또한 으뜸이니
좋은 상서 누리는 태평성대의 봄이런가.

1. 심순택 선조님은 누구인가

청령공 심순택 초상화

청령공 대훈위 심순택(沈舜澤)선조님은 청송 심문의 마지막 정승이며, 대한제국의 멸망을 끝까지 막으려 한 충신이었다. 대한제국 최초로 '공작(公爵)'의 작위를 받았고, '대훈위(大勳位)'에 녹훈되었다. 1884년 우의정 때 갑신정변이 발생하자 좌의정에 임명되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영의정에 오른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청령공은 안효공(휘:온)의 후예로 온양공(휘:인겸)의 11대손이며 청헌공(휘:택현)의 5대손이다. 조선왕조가 일제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고종의 최측근으로서 국정을 담당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하자 조병세와 함께

심순택이 최초로 받은(1902)
〈대훈위이화대수장
(大勳位李花大綬章)〉

울릉도 태하리에 있는 심순택휼진영세불망대

2. 심순택 선조님의 선정비를 찾아서

① 울릉도 태하면 〈領議政沈公舜澤恤賑永世不忘臺〉

1889년 울릉도의 농작물이 쥐와 새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 울릉도장 서경수는 영의정 심순택 선조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조정에서 논의해 양곡을 지원했다. 울진군 平海의 환곡 중 300석을 울릉도에 보낸 것이다. 울릉도는 급한 대로 흉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주민들은 이 때의 고마움을 바닷가 바위에 새겼다. 〈領議政沈公舜澤恤賑永世不忘臺〉가 그것이다.

② 김해시 생림면사무소 앞 〈領相國沈公舜澤永世不忘碑〉

비문 내용은 이렇다. "靑陽古宅의 후손으로/정승이 되어 무거운 명망이 있었네/천하 걱정은 남보다 먼저하고 즐거움은 남보다 뒤에 하니/조정에서 세운 계획 장하였네/대궐에서 의논 올려/피폐한 金州를 소생시켰네/바닷가 아름다운 봄 경치에/士女들이 은덕을 노래한다네."

3. '정경부인능성구씨송덕비' 의 의미

① 청령공 사후, 그 정경부인 능성 구 씨는 지역 주민에게 '살아있는 부처(活佛)'로 불릴 만큼 커다란 은혜를 베풀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합해 돌에 감사의 마음을 새겼다. ② 정경부인은 청령공이 남긴 유산으로 구씨학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의 진위중고등학교로 발전한 듯하다. ③ 정경부인은 가난하여 음식

김해시 생림면 심순택 영세불망비

을 먹지 못하는 자와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두루 시혜를 베풀었으며, 다리를 놓고 도로를 보수하였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조합을 만들어 근면을 권장하고 춘궁기에 무이자로 곡식을 빌려주었다. 연말에는 쌀과 반찬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청령공의 신도비문을 찬술한 대제학 김학진은 "우리나라에서 심 씨보다 나은 씨족은 드물다"고 찬미했다.

평택시 진위면 능성구씨 송덕비

〈영세불망대 · 영세불망비와 송덕비는 필자 촬영〉

지파종회 소식… 오늘도 조상님을 기리며

묘역 다듬고… 애국정신 기리고… 유허지 관리하고

⊙ 임피종회: 코로나19로 미뤘던 이사회 개최

2020년 6월 16일 좌승지공파 임피종회는 전북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재실 경모재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심수영 회장, 심재관 총무를 비롯한 17명이 참석해 그간의 안부를 묻고, 향후 종회 발전에 관해 진지한 논의를 나누며 일가 간에 우애를 다졌다.

⊙ 현재공파종회: 조선조 대표 화가 심사정 할아버지 묘역 정화

현재공파종회는 2020년 6월 3일부터 열흘간 현재 심사정(玄齋 沈師正 · 1707~1769) 할아버지 묘소의 축대공사와 사초를 완료했다. 공사를 끝낸 후 6월 20일 심종식 회장을 비롯한 후손들이 함께 모여 위안제를 봉행했다.

현재 심사정 공은 영의정 심지원 할아버지의 증손이고, 사간원 사간을 지낸 유명화가 정유점 선생의 외손자이시다.

일찍부터 겸재 정선의 문하에서 그림공부를 했고, 중국의 남화와 북화를 종합한 새로운 화풍을 이뤄 단원 김홍도와 함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로 평가받는다. 심사정 공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던 전문 화가로 산수, 화조, 인물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현재 3백여 점이 넘게 남아 있다.

심사정 할아버지가 그린 초충도 (草蟲圖)

원래 심사정 공의 묘소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었으나 이곳이 군사보호지역이 되면서 1978년 4월 정부시책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31-3 으로 천장했다. 현재공 후손들은 그 후 용인을 거점으로 청송심씨 현재공파종회를 만들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천장한 지 42년이 지나면서 잔디가 죽고 축대가 붕괴할 우려가 있어 올해 윤년해를 맞아 묘역을 정화하고 위안제를 봉행하게 된 것이다.

새롭게 단정한 현재 심사정 할아버지 묘역

⊙ 곡산공종회: 심우신 의병장 등 구국정신 계승

2020년 6월 1일 '제1회 의병의 날'을 맞이하여 김포의병기념사업회, 청송심씨 종친회, 재령이씨 종친회, 김포시 관계자 등 60여 명이 모여 김포항일의병운동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자 삼일만세공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진수 김포의병기념사업회장은 "나라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 분연히 일어선 8인의 김포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이를 김포발전과 통합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월 1일 김포에서 열린 '제1회 의병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곡산공종회 일가들

2019년에는 '김포를 빛낸 인물 심우신 의병장'을 주제로 김포아트빌리지에서 학술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따. 심우신 선생은 김포 대곶 대능리 출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진주성에서 왜군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현령공경남종회
두산정과 세덕사에 깃든
조상의 숨결을 알뜰살뜰 보살피다

경남 합천군 삼가면 두모2길7(두모리)에는 청송심씨 2세조 합문지후공(閤門祗侯公 · 휘 淵)의 재실 두산정(杜山亭)이 있고,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의 청송심씨 재실 만취재(晩翠齋)에는 여섯 현조를 모신 사당 세덕사(世德祠)가 있다. 이 두 곳을 정성껏 관리하고 있는 후손이 경남종회 이다.

두산정에서 경남종회원들이 향사를 봉행하는 모습.

2세조 연(淵) 할아버지는 고려 말, 궁중에서 조례(朝禮)와 의식(儀式)을 관장하는 합문(閤門)에서 지후(祗侯 · 正7品)를 지냈으며 그 후 경상도 산음현감(山陰縣監 · 현 山淸)을 역임하였고, 퇴임 후 임지에서 작고하셨다. 그 후 손자인 4세조 (德符 · 元符) 형제분께서 1377년 함열 남당산으로 이장해 모셨다.

비록 묘소는 이장하였으나 경남지역 후손들은 합문지후공의 유허지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1916년 합천에 두산정을 건립하고, 1934년에는 산청에 유허비를 세웠으며, 1976년에는 두산정 내에 사우 안분사(安分祠)를 건립하여 추원보본(追遠報本)의 정성을 다하고 있다. 경남지역 청송심씨 후손들의 갸륵한 뜻과 심의조 합천군수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두산정은 2005년 7월 경상남도 문화재자료(제375호)로 지정됐다.

문화재로 등록한 후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 2011년 3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마치고 심의조 심경섭 심성섭 심재화를 비롯하여 300여 후손들이 모여 자축했다. 그 사실을 기록한 중건기문은 성균관 부관장을 지내고 현 대종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동섭(東燮)이 찬(撰)하고 합천유림 허광영이 썼다.

2012년 헌액한 두산정 중건기.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에는 1700년대에 건립한 만취재와 사당 세덕사가 있다. 악은 선조(휘 元符)께서 려말에 "충신은 불사이군"이라며 두문동에 들어가시고, 이후 수대에 걸쳐 실묘(失墓)를 하게 되어 부득이 사당에 위패를 모시게 된 것이다.

사당에는 청송심씨 조선시대 현조인 8세조 판사공(휘 襲 세조 임오 1462~기축년), 9세조 이조판서공(휘 後刪 성종 1483~을축년), 10세조 예조참판공(휘 副曾 1500~경신년), 11세조 예조참판공(휘 濬 1517~정축년), 12세조 감찰공(휘 宗湖 1543년~계묘년), 13세조 주부공(휘 自春 1560 경신년)을 모셨는데 관직은 구보(舊譜)를 고증해 썼다.

세월이 흐르매 재실과 사당이 노후하여 고민을 거듭하던 중, 심규범 회장이 주도하고 전 후손이 힘을 합쳐 모금운동을 하여 1998년에 새롭게 중건했다. 새롭게 공사를 마치니 선조를 모신 세덕사에 그 사실을 기록한 기문(세덕사기)을 써서 후대에 참고가 되도록 하자는 중론에 따라 악은공 종회장 겸 대종회 부회장인 동섭이 그 사실을 찬(撰)하고 유림 허인향이 써서 헌액했다.

그밖에도 경남지방은 수백년에 걸쳐 선조를 섬기고 일가간에 우애를 나누는 숭조돈목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마음대회를 계기로 심한섭 회장을 중심으로 창원 함안 합천 의령 진주 산청 고성 등지의 소(小)지파종회까지 단결하고 있어 타 성씨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종보기자 현령공경남종회 총무 심진식(26세손)〉

지파종회 소식… 오늘도 조상님을 기리며

회장 교대하고… 사무실 새단장하고… 새 모임 만들고

기념식에는 청송심씨 곡산공종회장 심재갑, 재무이사 춘섭, 이사 찬섭, 선무공종중 이사 효섭, 이사 영섭, 심우신장군 15대 종손, 김포의병사업회 이사 창선이 참석했으며 이곳이 지역구인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

⊙ 대구종회: 심우정 회장 이임, 심훈 회장 취임

2020년 6월 26일 청송심씨 대구종회는 제49차 정기총회를 열고, 심훈 대구종회 수석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5년간 대구종회를 화합과 발전으로 이끈 전임 심우정 회장은 이날 명예롭게 이임했다.

심훈 회장(26세손)은 취임사를 통해 "조상의 빛나는 얼을 본받아 심문의 가치인 효와 우애 정신을 더욱 드높이자"며 "대구종회가 다른 종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심훈 회장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대구 청운신협 3대 이사장과 청운장학재단 이사장, 대구종회 이사와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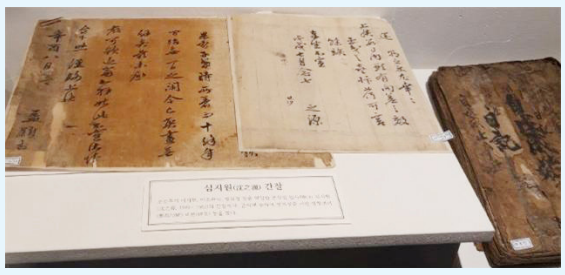
⊙ 안동종회: 사무실 안동선비문화박물관으로 이전

2020년 6월 16일 청송심씨안동종회는 경북 안동시 풍산면 경서로 4380-49 안동선비문화박물관(박물관장 심재덕 안동종회회장)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등록이사 26명 중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협의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동시 신세동 옛날 회관에 걸려 있는 〈청송심씨안동종회〉 명패는 새로 정비한 안동선비문화박물관으로 이전한다. 둘째, 청송심씨 안동종회 종인들의 염원인 안동종회사무실 마련을 위해 이사와 일가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TF팀 구성,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대종회와 협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건의한다. 셋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9월 중 대전의 뿌리공원 탐방 계획은 회장단에 위임한다. 넷째, 심규수를 종회 총무이사에, 심용선을 재무이사로 선임한다. 심재덕 회장은 이사회가 끝난 후 안동시 풍산 황우촌에서 참석 이사들에게 오찬을 대접했다.

한편, 안동선비문화박물관(전화 054-852-4506)에는 영의정 만사공(휘 지원)과 만사공 증손 한송재공(휘 사주), 재헌공(휘 정진), 전라도관찰사와 내부협판을 지낸 여주공(휘 상익) 등 청송심씨 선조들의 간찰도 여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안동종회 이사회 모습



영의정 만사공(휘 지원)의 간찰

작년 한마음 대회 후 지역모임 속속 결성

청송심씨우리종회 수도권 지역종회 '청송심씨우리종회' 발족

청송심씨우리종회 발족식 장면

우리종회 심재섭 회장(왼쪽), 심경진 총무

2019년 10월 한마음대회 개최 이후 청송심씨 친목모임 결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2020년 7월 2일 한마음대회 집행위원회에 참여한 (주)우리 심재섭 회장, (주)부경피엠씨 심익섭 회장, (주)골든포우 심진섭 회장, 연희시니어스 심재각 회장 등이 중심이 되어 '청송심씨우리종회'를 발족했다. 초대회장은 심재섭 회장, 사무총장은 사랑의 밥차 심경진 사무국장이 맡았다.

청수회 광주전남위원회 창립준비 완료하고 발족식만 남겨둬

청수회 광주전남위원회(위원장 심성식)가 창립 준비를 마쳤다. 심성식 (주)하늘천 대표이사(국빈장례문화원 사장)를 비롯해 많은 일가 청년들이 9차례에 걸쳐 창단 준비 모임을 가진 것이 결실을 본 것이다. 창립식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잦아들면 열기로 했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아직까지 지역종회와 청년회가 없어 일가끼리 친분을 돈독히 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한마음대회를 계기로 청년회 창립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심성식 위원장을 비롯해 심광섭, 심성은 일가를 중심으로 올해 4월 말부터 매주 모임을 갖고 지역모임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현재 5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회칙 제정과 조직 구성(초대회장 심성식, 부회장 심상석 등 9명, 사무국장 심성은, 재무국장 심용현, 홍보국장 미정, 감사 심강식 등)을 끝냈다.

6월 25일 9차 준비 모임에는 청광회 심재규 회장(팔레스 관광호텔 회장)을 초청하여 청송심씨의 자긍심과 청수회 광주전남위원회에 대한 바람, 덕담 등을 나누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창립 준비위원회는 광주지역 유지 일가를 찾아다니며 청수회 광주전남위원회의 창립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갑자기 광주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광주시청과 회원의 의견을 존중해 창립식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창단식 전까지 발기인 모임을 매월 개최하고, 청년회 조직을 단단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회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새로운 모임은 늘 힘들다.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다. 청수회 광주전남위원회가 패기와 비전, 단합과 우애를 바탕으로 7월의 신록처럼 청송심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해 본다.

〈광주전남지역종보기자 심홍섭(투어컴 광주지사장)〉

종회탐방: 부사공종회를 찾아서

출산장려금으로100만원… 종원들 복지에 발 벗고 나서

심재문
부사공종회 회장

11세조 부사공(휘 源海 · 1536년 중종 31년~1597년 선조 31년)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서 1561년(명종 16년) 생원, 1567년(선조 1년) 식년문과 병과 급제하고, 통훈대부, 서천군수, 성균관사예, 춘추관, 예문관 직제학, 상서원정 겸 경연참찬관,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 등을 역임하셨다. 8세조 감찰공(휘 光宗)의 증손, 9세조 의공(義恭)의 손, 10세조 병절교위(秉節校尉 · 휘 崑)의 차남이다.

부사공 할아버지의 직손으로 결성한 부사공종회는 창립 초창기에는 종원이 적은 데다 재정도 열악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종재가 수용되면서 그 보상대금으로 재정형편이 나아졌다. 종회의 재원 증식에는 역대 회장과 이사들의 사명감과 지혜, 종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크게 기여했다.

특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원해빌딩을 소유하게 된 데는 심재문 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고가 컸다. 임원들이 건물 매입과 신축,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유동자산을 늘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부사공종회는 정관을 통해 알 수 있듯, 종회장의 민주적 선출방식과 투명한 임원 선임, 객관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사회 운영도 주요안건은 전체 이사들이 참여하는 공론화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이런 과정은 통해 부사공종회는 종원들의 신뢰와 협조를 얻고 있다.

심재문 회장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종원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창안하고 시행하고 있다. 재원은 종재의 효율적 운용으로 얻은 수익금. 2020년에도 연간 6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회는 매년 단기, 중장기 종원복지사업안을 만들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그러다 보니 종원들은 자긍심을 갖게 되고, 미래 비전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그 결과 종원들은 시제 봉행, 총회 등에 가족 단위로 참가해 종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부사공종회의 주요 복지사업을 소개하면, 우선 지난 5월 말에 경기도 화성시 팔탄 선산에 평장 180여기를 수용할 수 있는 종회 가족묘지공원을 조성했다. 부사공종회 직손이면 누구나 묘를 쓸 수 있다.

둘째, 매년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선조님 묘소를 탐방해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고, 일가들과 우애를 다지고 있다.

그밖에도 부사공종회는 다음과 같은 복지정책은 시행하고 있다.

행사 및 명목	지 급 액	대 상
총회, 시제(년 2회) 참석여비	각 10만 원	행사 참석한 성인 종원과 배우자
생일축하금	각 10만 원	만 60세 이상 종원과 배우자
원로수당	2회(추석, 구정) 90만 원	종회 발전에 기여한 만 75세 이상 종원
출산장려금	100만원	자녀 출산 종원
장학금	고교생 2명 각70만 원 대학생 2명 각100만원	신청한 종원 중 심사해 결정

부사공종회는 앞으로도 종원들의 좋은 제안을 수렴하고, 이사회에서 끊임없이 정책을 발굴하여 국내 최고의 모범 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또 청송 심문의 위상과 부사공 할아버지의 빛나는 치적에 부응하도록 종회 임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한다.

2019년도 총회 장면. 부사공종회는 종사에 참여하는 종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지난 5월 말에 완공한 경기 화성시 팔탄 선산의 부사공묘원

지난해 10월 5일 심문의 본향 청송에서 열린 한마음대회에 참석한 부사공종회 일가 회원들

일가기업 탐방…전북 전주 ㈜청송스틸

“외길 고집이 성공의 비결… 심문 발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청송스틸은 청송심씨 전북종회 총무 겸 청장년회 회장인 심재열 대표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다. 공장, 지붕, 축사, 창고 등에 꼭 필요한 특허신제품 칼라강판, 징크강판, 기와강판, PE폼, 행거도어 등을 생산하는 전문업체이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하오리 10번지에 자리 잡고 있다.

㈜청송스틸 전경

이 회사의 뿌리는 1997년 4월 전북 최초의 샌드위치판넬 유통대리점인 ‘청송산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1월 회사를 법인으로 바꾸고, 사옥을 신축하면서 종합건축자재 백화점으로 도약했다.

현대의 건축 양식은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면서, 아름다운 외관은 물론이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청송스틸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20년 6월 청송스틸 공장을 준공하고, 오픈 칼라강판 및 건축자재 생산 시스템을 완비했다. 공장의 생산라인을 현대화, 자동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으로 물건으로 보낼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현대화 · 자동화로 탈바꿈한 청송스틸 생산라인

청송심씨 젊은CEO 등으로 구성된 청수회전국위원회(30, 40, 50대 중심 청송심씨 전국모임)는 6월 13일 이 공장에 모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범을 축하했다. 이 모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청주, 전남, 전북 등지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심재열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맨주먹으로 시작해 20여 년간 오직 한 길을 걸어온 결과, 공장을 키우게 돼 감회가 벅차다. 더욱이 전국 각지에서 일가분들이 찾아와서 축하의 꽃다발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니 기쁨이 두 배가 된다. 오늘을 계기로 삼아 청송심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청수회전북위원회 발전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열 대표이사(가운데 마이크 든 이)가 일가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청송스틸의 깨끗한 내부 전경

마침 ㈜청송스틸 부근에는 일가가 설립한 화산중학교(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874)가 있다. 청수회 회원들은 이날 화산중학교를 방문해 학교법인 화봉학원 심의두 설립자와 심웅택 화산중 교장으로부터 학교운영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자율형 화산중학교는 입학경쟁률이 60대1로 알려져 있다.

화산중학교 교사를 배경으로 찰칵

청수회 회원들은 이날 오후에는 완주 삼례문화예술원(대표 심가영 · 가희 자매)도 방문해 개그맨 심현섭 일가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에 참여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청송심문 사람들 - 이런 일 저런 일

수상, 표창, 추대, 승진… 곳곳서 심문의 위상 드높여

삼가 심완구 전 울산광역시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심완구 대종회 고문 별세. 울산광역시에서 시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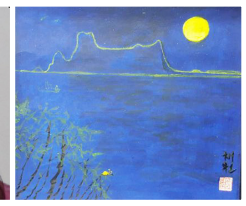
고 심완구 초대 울산광역시장의 영결식이 2020년 6월 11일 오전 9시 울산시청 햇빛광장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고 심완구 시장은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승격시키는 데 공헌했다.

심진선 육군 ○○사단장 '대통령부대표창'

2020년 6월 24일 육군 ○○사단(사단장 심진선 소장 · 사진)은 돼지열병(ASF) 대처와 대민지원 등 국가재난관리부문의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부대표창'을 수상했다.

채원 심단효 미술가

한국예술문화대상(우수작가상) 수상 (7월 8일)



채원 심단효 미술가와 수상작 '성산포의 야경'

삼례문화예술촌 공동대표 심가영 · 가희 자매

도전한국인상(세계문화 융복합창조자) 수상(7월 10일)

대종회 심동섭 부회장 성균관 고문 추대

심동섭

대종회 심동섭 부회장이 2020년 6월 26일 성균관에서 손진우 성균관장으로부터 고문(33대) 추대장을 받았다(사진). 고문은 성균관의 제반 업무에 대해 자문을 하는 자리이며 임기는 3년이다.

심동섭 부회장은 유림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진주향교 전교, 성균관 전학(典學), 전의(典儀), 경남전교협의회장, 전국전교협의회 부회장, 경남유교대학장, 성균관 부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진주노인대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하반기 인사 발령

심재윤 코리아타임즈 논설위원(6월 24일)

심영재 행정안전부 부이사관(5월 30일)

심재균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장(7월 10일)

심민령 울산광역시 혁신산업국장(7월 1일)

〈법무부〉(7월 2일자)
◇ 서기관 전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심경보
〈서울교육청〉(7월 1일자)
◇ 6급 전보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심진근 ▲북부교육지원청 심원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심용섭
◇ 8급(시설) 전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심지용
〈부산광역시〉(7월 1일자)
◇ 4급 전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심성태
〈부산교육청〉(7월 1일자)
◇ 6급 전보 ▲행정국 관리과 심재열
◇ 7급 전보 ▲해운대교육지원청 심기철
〈광주 광산구〉(7월 1일자)
◇ 4급 승진 ▲ 공원녹지과장 심재경
〈광주교육청〉(7월 1일자)
◇ 6급 전보 ▲서부교육지원청(평생교육복지과) 심영림
◇ 7급 전보 ▲동부교육지원청(평생교육복지과) 심도화
〈대전광역시〉(7월 1일자)
◇ 4급 전보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예보
◇ 5급 전보 ▲ 보건복지국 심우범 ▲ 청년가족국 심완섭
◇ 6급 전보 ▲ 일자리경제국 심정복 ▲ 과학산업국 심영두 ▲ 청년가족국 심은우
〈대전 중구〉(7월 1일자)
◇ 7급 전보 ▲ 의회사무국 심규경
〈대전 동구〉(7월 1일자)
◇ 6급 승진전보 ▲ 건축과 심용숙 ▲ 판암2동 심윤섭
〈대전 서구〉(7월 1일자)
◇ 7급 전보 ▲ 주차행정과 심창섭
〈울산교육청〉(7월 1일자)
◇ 8급 전보 ▲월평중 심율령
〈세종시교육청〉(7월 1일자)
◇ 7급 전출 ▲ 한국교통대 심민석
◇ 8급 전보 ▲ 정책기획과 심민섭
〈경기 오산시〉(7월 1일자)
◇ 5급 승진 ▲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경기교육청〉(7월 1일자)
◇ 6급 승진전보 ▲김포교육지원청 심현희
◇ 7급 승진전보 ▲의정부교육지원청 심철호
〈강원도〉(7월 1일자)
◇ 담당급 승진 ▲ 경로장애인과 심우철
〈강원교육청〉(7월 1일자)
◇ 시설관리 7급 전보 ▲ 행정국 총무과 심경택(횡성 횡성초)
◇ 교육행정 8급 전보 ▲ 강릉교육지원청 심범준(홍천 서석중)
〈충청북도〉(7월 1일자)
◇ 4급 승진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 심재정
〈충청남도〉(7월 1일자)
◇ 6급 승진 ▲충남도립대학교 심찬호
〈충남교육청〉(7월 1일자)
◇ 6급 승진 ▲한국식품마이스터고 심길보
◇ 7급 전보 ▲홍성 심재만
◇ 8급 전보 ▲용남고 심재명
〈전남교육청〉(7월 1자)
◇ 5급 승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심상미
〈경북 경산시〉(7월 1일자)
◇ 5급 승진 ▲ 세무과 심형택
〈경북 청송군〉(7월 1일자)
◇ 4급 명예퇴직 ▲ 문화체육과장 심정보
◇ 6급 승진 ▲ 현동면 심승환
◇ 7급 승진 ▲ 문화체육과 심새봄
◇ 8급 승진 ▲ 농정과 심광보
◇ 6급 전보 ▲ 농정과 심창환 ▲ 기획감사실 심순희 ▲ 의회사무과 심수 ▲ 재무과 심양택 ▲ 총무과 심상태
◇ 7급 전보 ▲ 사회복지과 심경희
〈경북교육청〉(7월 3일자)
◇일반직 전보 ▲ 경주교육지원청 심지영
◇일반직 전보 ▲ 안동교육지원청 심재돈
〈경남 창원시〉(7월 1일자)
◇5급 ▲의창구 대민기획관 심재욱
〈경남 통영시〉(7월 1일자)
◇4급 승진 ▲노인장애인복지과 심명란
〈경남 하동군〉 (7월 1일자)
◇5급 전보 ▲횡천면장 심경보
〈경남 함안군〉(7월 1일자)
◇ 6급 승진 ▲ 세무회계과 심대순
〈경남교육청〉(7월 1일자)
◇6급 전보 ▲감사관실 심현옥
◇8급 전보 ▲밀양교육지원청 심학삼
〈성신여대〉(7월 2일자)〉
◇ 보직임명 ▲교무처장 심성아
〈기술보증기금〉
◇부서장 ▲화성지점 심성학
〈파이낸셜뉴스〉
◇ 전보 ▲정치부장 심형준
〈국립한밭대〉(7월 1일자)
◇ 6급이하 전보 ▲전산정보원 심규철
〈한국조폐공사〉(7월 1일자)
◇ 3급 전보 ▲ICT서비스관리팀장 심종오
〈전라북도〉(7월 5일자)
◇ 5급 승진전보 ▲장애인시설안전팀장 심민규 ▲어린이창의체험관 총무팀장 심수용
〈전북 전주시〉(7월 6일자)
◇ 7급 전보 ▲일자리청년정책과 심선임
〈경상남도〉(7월 8일자)
◇ 5급 전보 ▲도정혁신담당 심우진
◇ 7급 전보 ▲회계과 심용학 ▲산업혁신과 심정민
◇ 8급 승진 ▲경남대표도서관 심은혜
〈전북 완주군〉(7월 9일자)
◇ 9급 전보 ▲구이면 심규리
〈전북 부안군〉(7월 10일자)
◇ 7급 승진 ▲보건소 심은지
〈울산광역시〉(7월 13일자)
◇ 6급 승진 ▲시민안전실 심성진
◇ 7급 승진 ▲교통건설국 심재윤
〈충남 논산시〉(7월 13일자)
◇ 5급 전보 ▲청렴감사실장 심경보
〈충남 태안군〉(7월 13일자)
◇ 6급 이하 ▲문예시설팀장 심승택 ▲농정과(신규) 심승우 ▲수산과(승진) 심혜련 ▲환경관리센터 심흥섭
〈경기 수원시〉(7월 15일자)
◇ 4급 승진전보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심규숙 ▲상수도사업소장 심언형
〈충남 아산시〉(7월 15일자)
◇ 7급 승진 ▲자원순환과 심호정
〈KDB산업은행〉(7월 15일자)
◇ 지점장 전보 ▲대전지점장 심기호
〈외교부〉 (7월 20일자)
◇ 4급 전보 ▲재외동포과장 심은교
〈인천광역시〉(7월 20일자)
◇ 4급 승진전보 ▲건축계획과장 심재정
◇ 5급 전보 ▲투자창업과 심순옥 ▲인사과 심윤보, 심왕보 ▲상수도사업본부 심현조
◇ 6급 전보 ▲자원순환과 심종영 ▲노동정책과 심선옥 ▲상수도사업본부 심상호
〈신용보증기금〉(7월 20일자)
◇ 지점장 전보 ▲오산지점장 심행주
〈전남 곡성군〉(7월 10일자)
◇ 5급 승진전보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심상권
〈대한민국 국회〉(7월 22일자)
◇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심정희

대종회 종보편집장에 심규선

대종회는 6월 24일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사진)을 대종회 종보 편집장으로 임명했다.

심문 관련 400년전 옛 기록 두 건 햇볕

청송 보광사(극락전) 보수공사 도중 403년 전 상량문 발견

청송심씨 시조 문림랑공(휘 洪孚) 묘소 수호사찰 보광사 극락전(주지 무구스님 · 보물 제1840호) 해체보수공사에서 중건 시기를 기록한 상량문과 청송심씨 선조분들의 흔적이 발견됐다.

문헌에 따르면 보광사는 이런 절이다. "7세기 경 신라시대의 명승인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처음 건립했다고 전해지며, 조선 세종의 비인 청송심씨(淸松沈氏) 소헌왕후(昭憲王后 · 1395~1446)의 시조묘를 모시는 사찰이었다. 극락전(極樂殿)은 세종 11년(1429)에 만세루 등과 함께 처음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의 건물은 조선 중기에 다시 지은 것으로 보인다. 보수공사 중 만력(萬曆) 43년 12월 1일 자의 상량문이 나왔으므로 1615년 건축으로 여겨진다."

▲ 중건 시기가 적힌 상량문

▲ 당시 중건에 참여한 선조들의 이름이 적힌 상량문

그런데 이번에 발견한 상량문에는 중건 시기를 '丁巳年(1617년)'으로 표기하고 있어 기존에 알려진 1615년보다 2년이 늦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상량에는 10세조 무사천헌감(휘 沈湖, 1565~1581)과 조카 11세조 심인달(沈仁達), 1592년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큰 공을 세우신 11세조 벽절공(휘 沈淸) 등 청송심문(沈門) 선조의 휘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는 "보광사가 청송심씨 시조 문림랑공(휘 沈洪孚) 묘소의 수호사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청송=심남규〉

10세조 심건(沈鍵)의 부인 광주이씨 묘갈명 발견

증 영의정 행승문원정자를 역임한 10세조 심건(沈鍵)의 부인 광주이씨의 행적을 담은 「의인 이씨 묘갈명(宜人李氏墓碣銘)」이 발견됐다. 이 기록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대중국 외교문서 작성의 제1인자로 인정받는 최립(崔岦)의 문집인 〈간이집(簡易集)〉에 들어 있다.

광주이씨 할머니는 홍문관 교리를 역임한 이연경 선생의 따님이다. 묘갈명은 아들인 청성부원군 문정공 일송 심희수(靑城府院君 文貞公 一松 沈喜壽)가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으로 있을 때 최립 선생에게 부탁해 지은 것이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실제로 비석을 세우지는 못했다. 비록 40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묘갈비(墓碣碑)를 건립해 효자인 일송공 선조의 뜻을 받들었으면 하는 것이 후손의 바람이다.

묘갈명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원문인 한문을 번역한 것이다).

"(전략) 청송 심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사인(舍人)인 증(贈) 영의정(領議政) 심순문(沈順門)의 손부(孫婦)가 되고, 동지돈녕부사 심봉원(沈逢源)의 자부(子婦)가 되고, 승문원 정자 심건(沈鍵)의 처가 되었다…열아홉 살 때 시집을 와서 33세에 홀몸이 되었다. 그러다가 67세가 되던 만력(萬曆) 갑신년(1584, 선조17)에 죽어, 그해 3월 9일 경인(庚寅)에 장례를 치렀다…남편의 상을 당해서는 입에서 말이 끊어지고 오직 죽만 마신 것이 몇 개월이나 되었으며, 항상 삼베옷을 걸치고 지낸 것이 또 무려 여섯 해나 되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 기일(忌日)을 맞으면 슬프게 통곡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일에 말이 미치기라도 하면 애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였는데, 이런 일이 종신토록 여일(如一)하였다(후략)" 〈LH 본부장 심종래〉

나이 적은 아저씨, 나이 많은 조카를 어찌 부르리까

심민섭(광주금당산종회 총무이사)

본인보다 나이는 적은데 항렬이 높거나, 나이는 많은데 항렬이 낮은 일가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요.

광주광역시가 고향인 나는 어려서 일가들이 많이 사는 동네의 골목 안집에서 살았는데, 골목 입구에는 나보다 25살이나 많으신 조카가 사셨다. 고등학교 시절 문중 시제에서 그 조카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친척이 "민섭아, 너는 조카에게 말을 올리냐"며 놀리셨다. 그 뒤론 그 조카와는 대화를 피하게 되고 자연히 사이도 서먹해졌다.

나보다 10살 많은 조카도 계셨다. 성격이 서근서근하여 나를 '삼촌, 삼촌'하고 불렀고, 나도 '형, 형' 하며 따랐다. 하지만 그 조카의 동생은 어린 나를 '삼촌'이라고 부르기가 어색해서인지 되도록 말을 삼갔고, 사이도 데면데면했다.

성씨가 같은 학교 동창이라면 친근감의 표시로 가끔은 '아재' '조카' 하지만, 대체로 반말을 쓴다. 그런데 선배라면 어떨까. '아재'라고는 할 수는 있어도 '조카'라고는 할 수 없으니 그냥 '선배'가 무난할 듯하다. 하지만 문중에서 만나면 '조카님' 하면서 말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듣는 선배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조카'들에게는 그냥 '여기요!' 하다 보니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장유유서 문화가 강하지만, 문중에서는 항렬에 따른 예절문화가 별도로 존재한다. 시대, 지역,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이의 비중이 커지는 오늘날에는 "항렬을 따르자니 나이가 울고, 나이를 따르자니 항렬이 운다"고나 할까. "뱃속의 할아버지는 있어도 나이 적은 형은 없다"는 말도 항렬과 나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전통과 시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호칭은 항렬에 따라 '아재' 또는 '조카님'이라고 부르고, 말은 나이에 따라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식으로 쓰면 어떨지 제안해 본다.

각종 찬조현황(2020. 5. 28 ~ 2020. 7. 10)

■ 각 찬조 50만 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심익섭 (오산시정공종회회장) 장학찬조 3백만원 2020년2월

심재섭 (장학재단이사) 장학찬조 1백만원 2020년3월

심상경 (장학재단이사) 장학찬조 1백만원 2020년4월

심의칠 (전 대종회부회장) 종보찬조 50만원 2020년4월

심대평 (장학재단이사장) 장학찬조 2백만원 2020년5월

심재봉 (인방산업 회장) 장학찬조 1백만원 2020년6월

심규화 (울산내금위종회회장) 종보찬조 150만원 2020년6월

심 훈 (대구종회회장) 장학찬조 50만원 2020년7월

임원회비

20년도 이사회비 50,000 홍섭(청송), 재근(경북), 재웅(대전), 재덕(서울)

종보찬조

1,500,000	울산내금위종회(회장 규화)
210,000	차숙(서울)
100,000	언촌(수원)
50,000	운택, 대규(음성)
30,000	천섭, 성근(예산)
20,000	상욱, 상수, 재홍

지로종보찬조 463,130

장학금기부

2,000,000	대평(이사장)
1,000,000	상경(이사), 재봉(인방산업 회장)
500,000	훈(대구종회장)
300,000	이경공파종중
200,000	은석(장학운영위원)
100,000	극택(서울)
50,000	재웅(대전)

<재단법인 청심장학회>는 미래자산입니다

장학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매년 3월경 고교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청심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전국의 청송심씨 후손이나 외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청심장학회는 국가와 사회의 각 분야를 리드할 수 있는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재능이 출중한 국가 동량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공고는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홈페이지(www.cshim.org) 또는 청송심씨대종회 홈페이지(www.csshim.or.kr) 그리고 연말에 발행하는 대종회종보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올해에 각 10명 등 이미 20명의 장학생을 배출하였으며, 제1회 장학생 중에는 영국 금융감독위원회에 수석합격을 하거나(심하진), 포스코 A&C회사에 입사하는 등(심지훈) 이미 결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재)청심장학회가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청심장학회 사업에 뜻을 이해하고 장학금 기탁(농협 301-0256-8973-11 재단법인 청심장학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일가분들의 정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청심장학회가 청송심문의 미래자산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 종보 제143호 장학기부금(한마음 백서) 20만원 '경남종회'는 '현령공경남종회'로 바로 잡습니다.

청송 '벽절정' 한옥 쉼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청송을 방문하거나 여행하시는 일가들을 위해 심문의 본향인 청송의 '벽절정' 한옥 쉼터를 제공합니다. 벽절정은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우신 벽절정 심청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지은 정자로 경북 청송읍 덕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송IC, 청송읍내, 덕천마을에서 5분 거리에 있어 교통접근성도 좋습니다.

벽절정 한옥 쉼터는 방이 4개로 10명까지 숙박할 수 있고 주차장과 샤워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숙박이용료는 최소 관리비(하루 10만원)만을 받을 예정입니다. 주변에는 주요관광지로 주왕산, 약수탕, 주산지, 지질명소가 있고, 심문과 관련한 유적지로 소헌공원(찬경루, 운봉관, 현비암), 보광산(시조묘, 만세루), 덕천마을(송소고택 등)이 있습니다.

심남규 청송청년회장(010-3530-4738)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듣고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송=심남규

인터넷 족보(族譜) 등재와 수정 신청을 받습니다

대종회는 청송심문의 혈통과 조상님의 훌륭한 업적을 수록한 대동세보(족보)를 5년 전에 일제히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출생, 사망, 결혼, 이장(移葬), 추가경력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 해 이번에 인터넷 족보를 다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족보에 새롭게 등재를 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시는 일가분께서는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수단(收單)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재신청 안내

1. 수단 접수기간 : 2020년 4월 1일~10월 30일

2. 제출서류
   가. 인터넷족보 수단용지 (별지 서식)
   나. 가족관계증명원, 재적등본, 기타 등재 관련 증빙서류
   ※ 족보등재는 공문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공문서 외의 파보, 가승 등 사문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수단금 납부 증빙서류 또는 납부확인서

3. 제출방법
   가. 우편 : 서울 중구 을지로 30길47(찬경회관 5층)
   나. 팩스 : 02-2269-7755
   다. 메일 : set217@naver.com

4. 수단작성 방법
   〈청송심씨종보〉 또는 〈청송심씨대종회〉 홈페이지의 「정보자료실 메뉴 21」에 공지한 수단용지(갑,을)를 출력하여 작성요령에 따라 상세히 작성 바랍니다.
   ※ 「정보자료실 메뉴 22」의 수단작성(견본) 참조

5. 수단금 납부
   가. 수단금 : 관(冠) 20,000원, 동(童) 15,000원, 수정(修正) 10,000원
   ※ 관은 기혼자(배우자 포함), 동은 미혼자의 신규 등록, 수정은 기 등재자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거나 배우자 등 추가 등재를 말합니다.
   나. 입금계좌 : 농협 301-2267-7857-81
   예 금 주 : 청송심씨대종회(족보)

6. 유의사항
   가. 수단록 제출 시 수단금 납부 영수증사본 등 납부확인서류를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입금 시에는 납부일자, 입금자, 금액 등을 유선으로 통보해 주세요.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종회 총무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연락처 : 02-2267-7857, 010-5591-0055

인터넷족보 수단대금 계좌
★ 인터넷 족보 계좌 ★
청송심씨대종회
농 협 : 301-2267-7857-81

청심장학회가 국가의 동량을 기르겠습니다.
★ 장학재단 기부금 ★
예금주 :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농 협 : 301-0256-8973-11

임원회비·종보찬조 계좌
청심장학회가 국가의 동량을 기르겠습니다.
청송심씨대종회
농 협 : 301-0107-5873-71